

요한계시록 강좌 넷째 날 / 10월 16일

1.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 / 요한계시록 7장

1) 그들의 수는 14만 4천 명이였다.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.

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환란 속에서도 온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상징수다.

2) 그 뒤에 내가 보니,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다. 9절 / 주목!

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,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대 사람들.

2. 두 증인 / 11장

하나님 앞에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촛대. 이들은 누구냐? 무엇이냐?

* 두 증인을 암시하는 구절

5절 / 그들을 해하려는 자는 불이 삼켜서 죽는다. - 열왕기하 1:9-12절

6절 / 비를 내리게 하고 내리지 않게 하는 권세를 가졌다. - 엘리야와 아합

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 - 모세

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,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증언인 '율법과 예언'이다.

3. 여자와 용 / 12장

1) 한 여자 / 해를 둘러 걸치고, 달을 발로 밟고, 열두 별 박힌 면류관을 쓴 여자

이스라엘 /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.

아기를 잉태한 여인 / 메시아 예언을 간직한 이스라엘, 그리스도를 잉태한 백성

2) 붉은 용 / 붉은색, 머리가 일곱, 뿔이 열 개

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태어나면 삼키려고 서 있었다.

3) 여자가 아들을 낳고, 아들은 하나님께 올라가고, 여자는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지낸다.

4) 하늘의 전쟁 / 미가엘의 승리로 용은 하늘에서 쫓겨나 땅에 내려왔다.

5) 쫓겨난 용과 땅에 남아 있는 여자의 후손과 싸움

6) 메시아를 낳고 메시아를 지키는 '여자' / 어머니 교회, 왜 여자일까?

4. 하늘 용/사탄의 땅에 있는 줄개, 괴물 짐승 두 마리, 13장

1) 첫 짐승 - 바다에서 올라왔고, 뿔이 열 개에 머리가 일곱,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
생김새 / 표범, 곰의 발, 사자 입. 잔혹한 야수의 총체. 신화적 괴물.

하늘 용의 지상 대리자 - 황제 / 주피터의 현신.

박해와 순교의 때, 성도들의 '인내와 믿음'이 필요하다.

2) 두 번째 짐승(13:11-18)

(1) 땅에서 올라온 짐승. 우리 안에서(국산), 짐승은 밖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다.

(2) 생김새 - 어린 양처럼 뿔이 났다. 거짓 종교인. 종교 권력자.

(3) 치명상을 입었다가 나온 짐승에게 절하게 한다. 우상 숭배 세뇌.

(4) 큰 기적을 행하였다.

(5)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였다.

3) 짐승의 수 육백육십육(18절)

(1) 게마트리아 계산법 - 알파벳을 숫자로 계산하는 법

(2) 삼각수 계산

(3) 6이라는 수는 인간의 수

666을 어떤 인물을 지칭한다고 확정하는 것보다는,

인간을 신격화/우상화하는 모든 우상 숭배를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다.